

못난 엄마

제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자녀들에게 못난 엄마라고 표현하시거든요. 10년새 어머니를 세 번 뵈었습니다. 한 번은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였고, 두 번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. 그리고 그 때마다 우는 어머니를 뵈어야 했습니다. 10년 전에도, 그리고 작년에도 어머니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,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.

제 어머니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문약국집 딸로 불렸습니다. 외삼촌이 전주여고 교사로 재직할 때 전주로 유학을 가셨다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.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시절 불의한 교장 선생님과 싸우셨다는 정 많은 정의파였습니다. 밖에서는 밝고 재미있고 여장부같은 분이 안에서는 시댁 식구 등쌀에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못난 엄마가 되어가셨네요.

어릴 적 어머니에게 한 번 맞았습니다. 어머니 몰래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 군것질을 하다가 들켰거든요. 어머니는 큰 손입니다. 많은 분들, 특히 교역자들이 혜택을 받으셨지요. "큰 돈을 쓰려면 작은 돈을 아껴야한다"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, 저는 큰 돈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. 작은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. 저는 어머니를 잘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믿질 않으십니다.

어릴 적 어머니의 경상도 말투를 흉내 내곤 했습니다. 제게 경상도 말투는 친근합니다. 4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할 때, 오히려 제 말투가 지나치게 암전하여 부산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곤 하였습니다. 어머니는 "내 목소리가 커서 창피하지?"라고 하시지만 저는 한 번도 어머니의 큰 목소리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. 참 멋진 엄마인데, 믿질 않으시네요. 해피 마더스데이!

2019. 5. 12. 임철성 목사 올림